

‘녹색의 전화’개설한 박영숙 평민 부총재

“公害피해 구제 위해 진력할 결심”

김석봉/건강저널 기자

“**녹색**의 전화는 환경문제 상담실입니다.”

환경오염이 심각해져 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공해로 인한 피해구제나 환경문제 상담을 위한 ‘녹색의 전화’가 지난 8월 28일 여성백인회관 2층(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3)에 개설되었다.

이 ‘녹색의 전화’는 평민당 박영숙 부총재가 국회 보사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낀 심각한 환경문제를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개설한 것이다.

“오늘의 문화는 힘의 문화요 죽음의 문화입니다. 이젠 생명의 문화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간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이나 소비 위주의 문화가 자연파괴와 심각한 공해 문제를 낳았어요.”

평민당 박영숙 부총재는 현대문화의 오류를 지적하며 ‘녹색의 전화’ 개설의 배경에 대해서 선뜻 말을 꺼낸다.

“각종 공해로 인한 난치병 발생, 자연생태

계 파괴 등 환경공해가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고 있어요. 30여 년의 산업화로 누적된 공해문제들이 이제 실제생활에 드러나기 시작한 거지요. 하지만 아직도 버젓이 자연과 떠나 환경오염은 자행되고 있고 그 피해자는 거의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박 부총재는 공해의 심각성에 비해 그간 공해피해자들의 보호엔 정부나 사회가 소홀했다고 강조하고 ‘녹색의 전화’는 환경 공해의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구제나 해결의 적법한 절차를 몰라 손해를 당하는 국민들에게 구체적 법적근거를 마련해 해결절차를 상담해 주고 법률적 조언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피해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공해의 피해를 해결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환경공해를 추방하는 일에 활동방향을 맞추려 한다고 앞으로의 활동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그간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만 치중하고 그 부산물인 환경오염에 대한



공해피해구제를
위해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환경문제
상담실인
'녹색의 전화'를
개설한 평민당
박영숙 부총재.

대책은 소홀히 한 나머지 그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진폐증 환자가 1만2천 명이 넘고 온산·울산공단 주민들이 수은중독 때문에 집단이주했으며 광양만의 양식장은 여천공장 폐수와 매립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또 인근의 사격장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들,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노동자들, 방사능오염으로 기형아를 출산한 부인들 등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환경오염이나 공해의 피해는 심각하다.

하지만 피해의 심각성이나 확산에 비해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구제의 절차에 대해 조언을 구할 만한 전문기구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문제를 상담해 주는 '녹색의 전화' 개설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깊은 일이라 하겠다.

환경문제 상담실 '녹색의 전화'

상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해공장입주, 공유수면매립, 안전대책이 소홀한 핵발전소 건설, 무분별한 관광개발사업 등의 자연생태계 파괴 행위와 산업폐기물·공장폐수 등으로 인한 피해, 소음·진동·방사능 오염, 해양오염·상수원오염·농산물오염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등이며 또 중소기업의 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법률 상담을 해준다.

상담방법은 '녹색의 전화' 784-2003, 2004를 이용한 전화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관련자료를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면접상담, 상담위원이 공해 현장을 찾아가는 현지방문상담이 있다.

한편 '녹색의 전화' 상담위원은 박 부총재